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이미 예고된 대형 이벤트도 활용가치가 있다

■ 기업/산업분석

팬오션, 정다운, 화장품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서진시스템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로보틱스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경제분석 | 박정우

시황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채권분석 | 오창섭

계량분석 | 안혁
중국시장 | 최설화
크레딧분석 | 김기명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부쑤언토
해외채권 | 정영록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글로벌기업 | 김시우

이미 예고된 대형 이벤트도 활용가치가 있다

대내외 증시의 조정국면에서도 소형 성장주의 강세 기조는 굳건히 유지
이벤트 관련 뉴스 플로우가 정점을 지나기 전까지는 모멘텀 플레이 유효
수급개선의 여지가 큰 중소형 실적주들에 대한 길목지키기 투자 필요

1. 대외적 조정압력과 대내적 상승압력 병존

조정 폭과 기간이
예상 외로 깊어지고
길어질 가능성

지난 2월 초에는 금리 상승을 빌미로, 3월 말에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급조정세를 연출한 데 이어 3월 중순부터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유출 스캔들,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중단, 테슬라 모델3의 생산 차질, 아마존의 세무조사설 등이 투자심리를 냉각시키며 그 동안 글로벌 증시를 지탱해 왔던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주식마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2월 초 급락세를 극복하고 3월 초부터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재개했던 나스닥도 급락세를 재연하고 있다. 정치권의 IT 규제와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FAANG 기업들에서 실리콘밸리 내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강세장 하에서의 기간조정이라는 의견이 아직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조정 폭과 기간이 예상 외로 깊어지고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장 급락 와중에도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지수는
정배열 흐름 유지

이처럼 미국발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스닥지수가 중기 투자심리를 좌우하는 기준점인 100일 이동평선을 재이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지수는 50% 되돌림선과 수급선에 확고히 지지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수급선을 이탈한 상태이지만 코스피 대비 상대 강세를 유지하는 등 견고한 모습이다.

[그림 1] 2월초 저점 수준으로 재추락한 나스닥지수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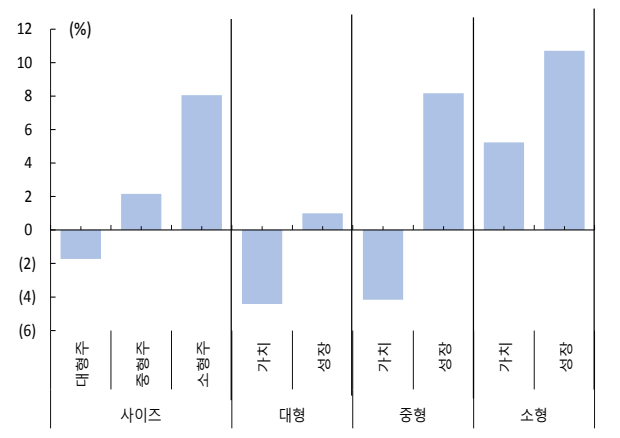
[그림 2] 50% 되돌림선과 수급선이 지지되고 있는 소형주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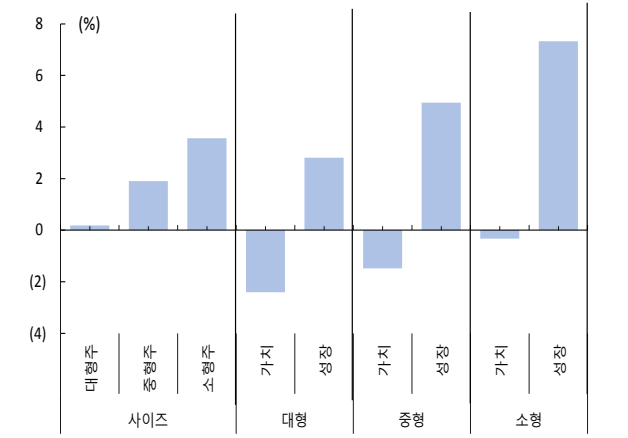
금년 들어 대/중/소형주별 가치주와 성장주의 주가를 보면, 소형성장주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최근 1개월간의 주가도 소형성장주의 강세가 현저하다. 2월 초 급락장 이후 조정압력과 상승압력이 빈번히 교차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와중에서도 소형성장주 일변도의 시장 내부흐름은 굳건히 유지되는 양상이다.

[그림 3] 사이즈별 가치주와 성장주의 금년 중 등락률



주: 금년 중 등락률은 1월 1일~4월 3일까지의 등락률임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사이즈별 가치주와 성장주의 최근 등락률



주: 최근 등락률은 3월 1일~4월 3일까지의 등락률임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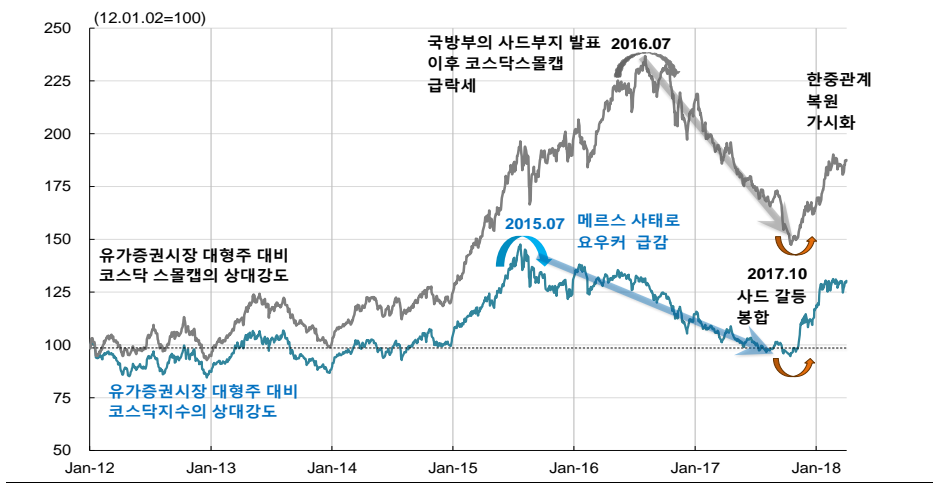
**다양한 코스닥상품들의
 라인업으로
 코스닥 수급 개선
 여지 상존**

이처럼 스몰캡을 대표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와 코스닥지수가 대내외 주요 지수들 대비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및 대중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3월 말 KRX300 ETF 상품들이 출시된 데 이어 4월 5일에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범 그리고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코스닥을 중심으로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개선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한·중 관계 복원은
 개별종목 장세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4월 중 시장 불확실성이 재증폭된다 하더라도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존재하는 국면에서는 남북경협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개별 종목장세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3월말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인 양제츠가 사드 보복 조치 중단을 밝힘에 따라 대중관계 복원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중관계 경색에 따라 상대적 약세를 보인 중소형주가 작년 10월 한·중 양국의 교류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계기로 상대적 강세 국면에 돌입했었다는 사실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중 관계 복원 기대감으로 면세점, 여행, 카지노, 화장품, 배터리, 게임, 엔터 등 중국 소비 및 요우커 관련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중 관계가 사드정국 이전으로 복원될 경우 중국시장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성장주들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그림 5] 대형주지수 대비 코스닥 및 코스닥 스몰캡지수의 상대강도 추이



자료: 데이터스트림, 한국투자증권

수급개선 여지가
큰 중소형주에 대한
길목지키기 전략 유효

더구나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인 KRX300의 경우, 기존 KRX100이나 KTOP30과는 달리 다양한 연계상품들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으며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일환인 코스닥 벤처펀드가 4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케일-업펀드 등 코스닥시장의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라인-업 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량한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 수급 개선 여지가 크다.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량 중소형주들에 대한 선호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발 빠른 투자자들은 수급 개선 여지가 큰 중소형주들에 대한 길목지키기 투자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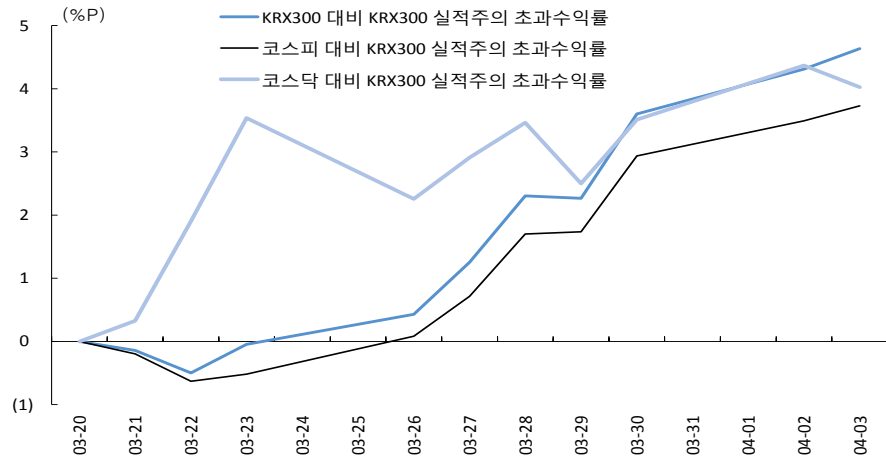
2. 대형 이벤트를 활용한 전술

뉴스 플로우가
정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벤트의 활용가치는
상존

통상 예고된 이벤트들의 경우 주가에 선반영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벤트 투자의 전술적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효율적 시장을 가정한 교과서와는 달리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이미 예고되었거나 혹은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도 뉴스 플로우가 정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험적이다.

지난 3월 26일 KRX300 지수(2018년 2월 5일 최초로 산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및 지수 선물에 상장된 이후 전술적 선택지로 여겨져 왔던 'KOSPI200과 KOSDAQ150에 미편입되어 있는 KRX300 종목들'에 대한 길목지키기 전략은 실제로 승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KOSPI200과 KOSDAQ150에 미편입되어 있는 KRX300 종목들 중에서 금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들(금년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4개 종목)'의 주가를 보면 ETF가 본격 출시된 3월 26일 기점으로 뚜렷한 초과수익을 시현하는 모습이다.

[그림 6] KRX300 실적주의 코스피 및 코스닥 대비 초과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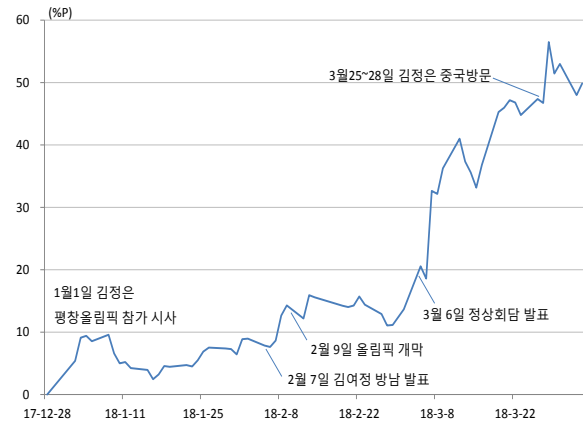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코스닥벤처펀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길목지키기 유호

따라서 출시가 예정된 코스닥벤처펀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길목지키기 전략도 승산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 특히나 금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수급 기반의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여지가 있다. 기관 매수세가 연속 유입되는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는 고려할 만한 전술이다.

[그림 7] 코스피 대비 남북경협 관련주의 초과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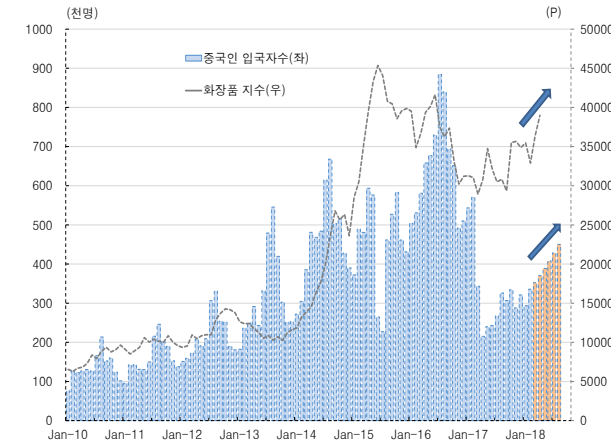


주:코스피 대비 남북경협주의 초과수익률은 남북경협 관련 32개 종목의 평균주가로 산출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남북 정상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북 리스크 축소로 귀결될 공산 큼

주지하다시피 4월 27일로 예정된 정상회담 이벤트도 최근 남북경협주의의 주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선반영 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남북 정상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북 리스크 축소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재료로서의 가치가 소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남북경협 관련주 주가의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남북 경협 관련주 중 정상회담의 재료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투자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림 8] 화장품업종 지수와 중국인 입국자수 추이



주: 화장품업종은 와이즈에프엔의 Industry26 업종임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중국인 입국자수가 본격적인 증가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중국 특수주로의 순환매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대중관계 복원과 관련해서도 중국인 입국자수가 본격적인 증가세로 돌아설 때까지 중국특수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 1~2년에 비해 대중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나빠질 가능성보다 크다면 중국 특수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을 지속할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대중관계 악화로 소외 받았거나 할인 거래되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주가 복원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참고로 아래 표에는 코스닥벤처펀드, 북한, 중국 그리고 2018년 최대 실적 이벤트 관련주들을 정리했다. 1) 코스닥벤처펀드 관련주에는 KOSDAQ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는 종목 중 2017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10%,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선별하였다. 2) 북한 관련주에는 당사의 2018 테마북 남북경협관련주 중 지난 1년 이내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했으며 3) 중국 관련주에는 중국향 수출 기업 중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 20% 이상 증가하는 종목들을 선별하였다. 4) 2018년 최대 실적주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종목 중 밸류에이션 매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였다.

<표 1> 이벤트 관련 중소형주

(단위: 배)

분류	종목명	TTM		비고
		PER	PBR	
코스닥 벤처펀드	브이원텍	20.0	3.6	OLED를 중심으로 하는 압흔검사장비의 중국 수주 지속 및 2차전지 신규사업 매출 본격화 전망
	피앤이솔루션	30.9	4.2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지속적 성장 전망
	민앤지	19.6	3.0	정부가 공인인증서의 전면 폐지를 선언함에 따라 다양한 인증 솔루션들이 수혜 전망
	다나와	16.4	2.9	사업 카테고리 다각화에 따른 외형확대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
	인바디	34.9	6.3	국내 1위의 체성분 분석기 업체로 해외 시장 다각화 기대
	나스미디어	27.7	5.7	동영상과 IPTV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전망
북한 관련주	대아티아이	24.5	2.0	철도신호제어시스템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상위권의 시장점유율 보유
	에머슨퍼시픽	213.6	1.7	골프레저 업체로 금강산 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를 보유
	남해화학	25.3	1.6	국내 최대 비료(복합비료, 요소 등) 생산 및 판매업체로 암모니아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중국 관련주	네오팜	39.1	9.5	계열사 유통망을 통한 중국 판로 확대 및 상해 면세점 입점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쇼박스	24.8	2.8	중국 당국의 개봉 승인 시 내년 2~3개 작품 개봉이 가능해 100억원 이상의 관련 수익 기대
	한스바이오메드	36.0	5.2	인공유방보형물의 중국 수출 본격화 전망
	에스디생명공학	29.7	4.0	위생허가 취득 증가와 입점 효과로 인한 중국 오프라인 매출 증가 기대
	매일유업	15.1	1.8	중국과의 외교마찰 해소로 마진률이 높은 분유 제품의 판매 증가 기대
2018년 최대실적주	정다운	8.2	2.1	오리 가격과 시장점유율의 동반 상승에 따른 실적 성장 전망
	코웰패션	10.0	2.7	카테고리 및 채널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대
	테크윙	9.7	2.4	SSD Test 공정의 자동화 추세와 후발 3D NAND 업체들의 후공정 관련 투자에 따른 수혜 전망
	F&F	8.7	2.2	강한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한 신상품 라인업 확대에 따른 외형성장 기대
	한양이엔지	7.9	1.1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의 투자확대 및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외형 성장 전망
	바텍	7.4	3.0	선진국 향 저선량 고가 제품(Pax-i 3D Green) 및 신흥국 향 2D Insight 중심의 실적 성장 기대

주: 4월 2일 증가 기준 산출. TTM은 Trailing Twelve Month의 약자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팬오션(028670)

1Q18 Preview: 만회 가능한 부진

단기 실적에 대한 과도한 우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먼저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부담요인이다. 벌크선 시장의 비수기인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40억원으로 성수기인 작년 4분기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중국 춘절 이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던 BDI(벌크선 운임지수)가 3월에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벌크선 공급증가가 제한적임을 감안하면 연간 BDI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팬오션의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동기 대비로는 14%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기 실적과 중장기 전망에 괴리가 발생할 때 운송업종 주가는 단기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팬오션 주가는 3월에 이미 10% 하락했고 어제 1분기 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9%나 더 빠졌다. 실적과 BDI 부진은 아쉽지만 오랜만에 2018F PBR 1배 아래로 내려온 현 주가는 저점 매수기회다.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907억원, 467억원으로 추정한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 영업이익은 14% 늘어날 전망이다. 벌크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한 420억원으로 예상된다. 단기 벌크해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스핏영업 실적은 기대를 하회했다. 3월 이후 BDI 상승폭이 둔화된 점을 반영해 올해 운임상승에 대한 눈높이를 소폭 낮추고 영업이익 전망도 4% 하향조정한다.

예상을 벗어난 벌크운임의 반등 시점이 관건

1분기 평균 BDI는 전분기대비 22% 하락했다. 3월말 BDI는 1,055p로 춘절연휴 직전인 2월 바닥보다 낮아졌다. 통상적인 계절성 패턴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운임 지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시황이 철광석 수요 둔화로 부진한 영향이 크다. 케이프선 운임지수인 BCI는 3월 550p 급락하며 전체 BDI보다 낮아졌다. 케이프 용선료가 파나막스 선박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 선복량 증가율이 2%로 제한적인 만큼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다면 운임은 2분기 정상화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6A	1,874	168	98	184	55.9	337	21.7	10.1	0.8	4.0	-
2017A	2,336	195	143	268	45.7	363	19.7	10.5	1.2	5.8	-
2018F	2,552	224	169	317	18.3	385	15.2	9.2	1.0	6.9	-
2019F	2,898	272	204	381	20.2	437	12.7	8.0	0.9	7.7	-
2020F	3,292	309	211	395	3.7	477	12.2	7.3	0.9	7.4	1.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매수(유지)

목표주가: 7,000원(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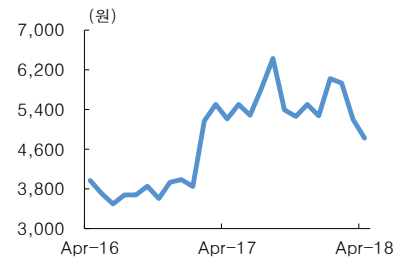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4/4)	2,408
주가(4/4)	4,825
시가총액(십억원)	2,579
발행주식수(백만)	535
52주 최고/최저가(원)	6,650/4,825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20,340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41.2/7.4
주요주주(%)	제일홀딩스 외 29 인 51.2
	포세이톤2014유한회사 7.6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6.7)	(10.5)	(5.4)
KOSPI 대비(%p)	(16.9)	(11.0)	(16.8)

주가추이



자료: WISEfn

최고운

gowoon@truefriend.com

<표 1> 실적 전망 변경 전후 비교

(단위: 십억원, %, %p)

	1Q18F			2018F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 전	변경 후	%
매출액	600	591	(1.6)	2,594	2,552	(1.6)
영업이익	53	47	(11.7)	234	224	(4.0)
영업이익률(% , %p)	8.8	7.9	(0.9)	9.0	8.8	(0.2)
지배주주순이익	39	34	(14.7)	178	169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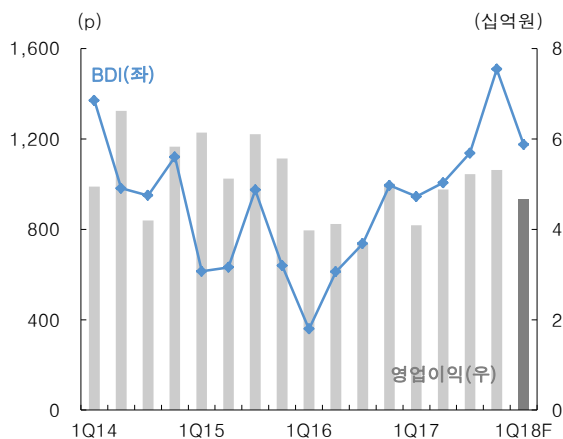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2> 1Q18 실적 전망

	한투증권 (십억원)	QoQ (%, %p)	YoY 컨센서스 대비 (%, %p)	컨센서스 (십억원)	1개월 변화 (%, %p)
매출액	590.7	(3.6)	13.0	602.6	(0.3)
영업이익	46.7	(13.7)	14.3	53.6	(1.3)
영업이익률(%)	7.9	(1.0)	0.1	8.9	(0.1)
지배주주순이익	33.6	(18.9)	4.0	41.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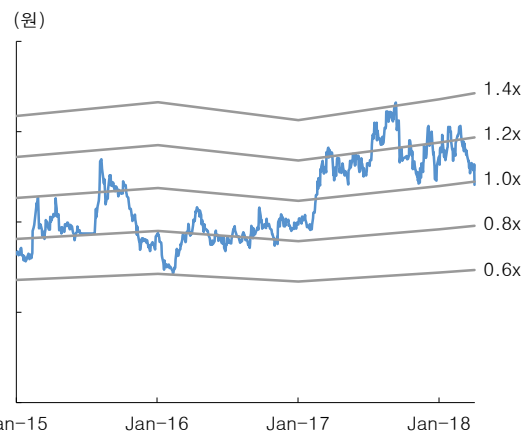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그림 1]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크게 하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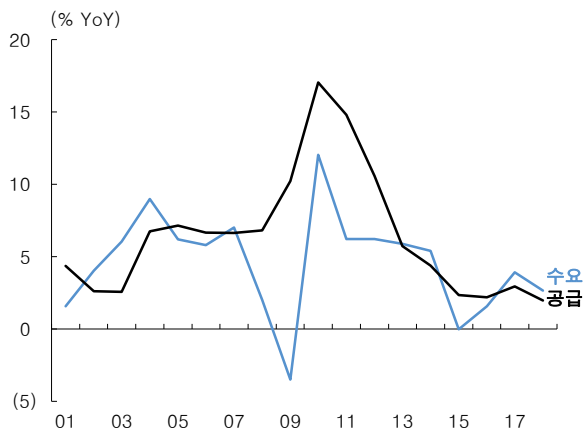
자료: 팬오션, 한국투자증권

[그림 2] 현 주가는 PBR 1배로 실적 우려를 충분히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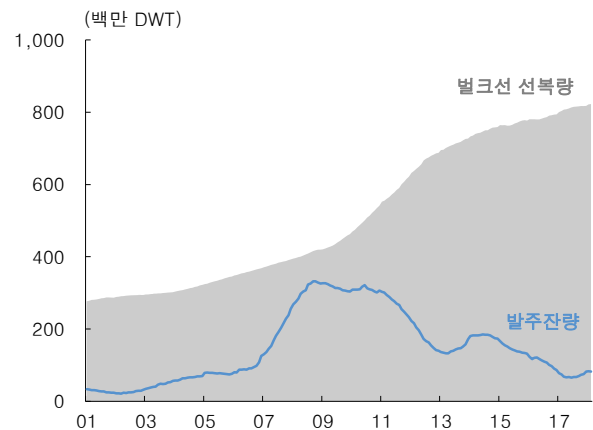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올해도 벌크선 수요증가율이 공급을 상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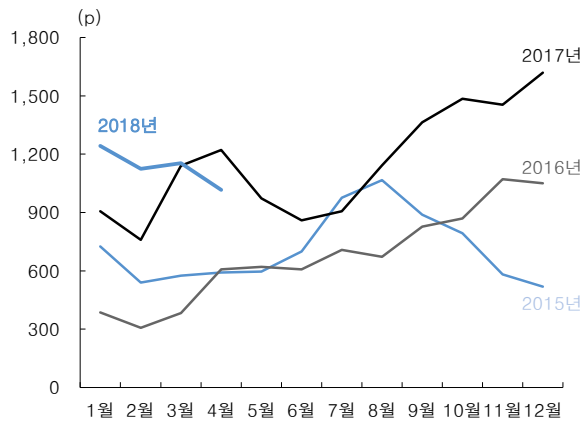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한국투자증권

[그림 4] 2018년 공급증가율은 2%에 머물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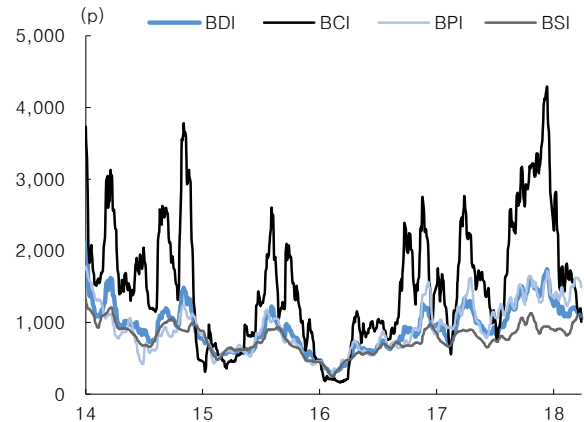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한국투자증권

[그림 5] BDI는 이례적으로 3월에도 부진



자료: Clarksons,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철광석을 주로 수송하는 케이프사이즈 시황 부진



자료: Clarksons, 한국투자증권

<표 3>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 % YoY)

	2017				2018				연간			
	1Q	2Q	3Q	4Q	1QF	2QF	3QF	4QF	2016	2017	2018F	2019F
매출액	523	633	584	597	591	638	655	669	1,874	2,336	2,552	2,898
증가율	15.6	42.8	25.3	16.5	13.0	0.9	12.2	12.0	3.0	24.7	9.2	13.6
벌크	406	439	447	451	455	496	509	519	1,386	1,743	1,979	2,276
기타	117	194	137	146	136	142	146	150	488	594	573	623
영업이익	41	49	52	53	47	56	59	63	168	195	224	272
증가율	2.8	18.6	41.8	5.9	14.3	14.1	13.3	18.3	(26.8)	16.2	15.1	21.3
영업이익률	7.8	7.7	8.9	8.9	7.9	8.7	9.0	9.4	9.0	8.3	8.8	9.4
세전이익	33	21	43	45	36	45	48	52	99	143	180	225
증가율	(55.8)	(15.8)	56.9	NM	7.0	111.2	11.6	14.0	107.4	44.4	26.0	24.8
지배주주순이익	32	20	42	48	34	42	45	49	98	143	169	204
증가율	(57.3)	(15.3)	54.8	NM	4.0	108.7	6.6	1.0	114.9	46.2	18.5	20.2

자료: 팬오션,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1966년에 설립된 해상화물 운송업체로 2013년 회생절차를 거쳐 2015년 하림그룹에 인수됨.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벌크 전문선사로 Vale, 포스코, 현대제철 등 우량화주와의 장기운송계약과 시황에 노출되어 있는 스팟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 실적 창출. 2017년말 기준 사선 81대를 포함해 총 211대 규모의 선대를 운영하고 있음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유동자산	573	613	670	761	864
현금성자산	245	208	227	258	29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69	201	219	249	283
재고자산	48	50	55	62	71
비유동자산	3,757	3,281	3,431	3,553	3,669
투자자산	40	21	23	26	30
유형자산	3,678	3,224	3,369	3,482	3,588
무형자산	10	10	11	12	14
자산총계	4,331	3,894	4,101	4,314	4,533
유동부채	524	545	585	626	67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3	199	217	246	280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2	47	58	58	58
유동성장기부채	323	272	283	295	310
비유동부채	1,241	939	939	908	914
사채	45	28	30	31	31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1,149	874	868	831	831
부채총계	1,765	1,485	1,524	1,534	1,585
지배주주지분	2,541	2,389	2,559	2,762	2,931
자본금	534	535	535	535	535
자본잉여금	1,940	1,941	1,941	1,941	1,941
기타자본	7	5	5	5	5
이익잉여금	(210)	(66)	103	307	476
비지배주주지분	25	21	19	18	17
자본총계	2,566	2,410	2,578	2,780	2,948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영업활동현금흐름	251	262	313	345	350
당기순이익	97	141	168	203	21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68	167	159	163	166
무형자산상각비	1	1	1	1	2
자산부채변동	(31)	(46)	(17)	(27)	(33)
기타	16	(1)	2	5	5
투자활동현금흐름	(92)	(117)	(313)	(291)	(288)
유형자산투자	(99)	(106)	(304)	(276)	(272)
유형자산매각	24	0	0	0	0
투자자산순증	(24)	(14)	(2)	(3)	(4)
무형자산순증	(2)	(1)	(2)	(3)	(3)
기타	9	4	(5)	(9)	(9)
재무활동현금흐름	(198)	(155)	20	(23)	(27)
자본의증가	0	0	0	0	0
차입금의순증	(198)	(155)	18	(24)	15
배당금지급	0	0	0	0	0
기타	0	0	2	1	(42)
기타현금흐름	6	(27)	0	0	0
현금의증가	(33)	(37)	19	31	35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1,874	2,336	2,552	2,898	3,292
매출원가	1,650	2,072	2,251	2,556	2,903
매출총이익	224	264	301	342	389
판매관리비	56	69	77	70	79
영업이익	168	195	224	272	309
금융수익	16	14	16	18	18
이자수익	3	3	3	3	3
금융비용	60	59	60	65	65
이자비용	44	52	47	47	46
기타영업외손익	(24)	(7)	0	0	0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99	143	180	225	263
법인세비용	2	2	13	23	53
연결당기순이익	97	141	168	203	21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98	143	169	204	211
기타포괄이익	79	(296)	0	0	0
총포괄이익	176	(155)	168	203	210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76	(151)	169	204	211
EBITDA	337	363	385	437	477

주요투자지표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주당지표(원)					
EPS	184	268	317	381	395
BPS	4,754	4,469	4,786	5,167	5,483
DPS	0	0	0	0	8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3.0	24.7	9.2	13.6	13.6
영업이익증가율	(26.8)	16.2	15.1	21.3	13.6
순이익증가율	114.9	46.2	18.5	20.2	3.7
EPS증가율	55.9	45.7	18.3	20.2	3.7
EBITDA증가율	(14.1)	7.7	6.0	13.6	9.1
수익성(%)					
영업이익률	9.0	8.3	8.8	9.4	9.4
순이익률	5.2	6.1	6.6	7.0	6.4
EBITDA Margin	18.0	15.5	15.1	15.1	14.5
ROA	2.2	3.4	4.2	4.8	4.8
ROE	4.0	5.8	6.9	7.7	7.4
배당수익률	-	-	-	-	1.7
배당성향	0.0	0.0	0.0	0.0	20.2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1,256	965	959	897	869
차입금/자본총계비율(%)	59.3	50.7	48.1	43.8	41.8
Valuation(X)					
PER	21.7	19.7	15.2	12.7	12.2
PBR	0.8	1.2	1.0	0.9	0.9
EV/EBITDA	10.1	10.5	9.2	8.0	7.3

정다운(208140)

Not rated

오리의 꿈

안마당으로 들어온 오리

식문화 변화에 따르는 가공육 부문의 성장세에 주목한다. 2013년 가공육 부문의 매출 비중은 11.6%로 신선육 비중 51.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14년 17.6%, 2015년 28.8%, 2016년엔 29.8%, 2017년 23.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가공육 비중은 23.7%로 2016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이는 큰 폭의 신선육 매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가공육 부문의 매출액은 2016년 169억원에서 2017년 190억원으로 12.4% 증가했다. 가공육의 이익률이 신선육 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공육 비중의 상승은 전사 이익률 측면에도 긍정적이다.

오리가격 상승세 + 매출처 다변화

오리가격 상승과 매출처 다변화,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2018년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다. 최근 오리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6~17년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오리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입식제한 권고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한동안 오리가격의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매출처 다변화도 긍정적이다. 과거 정다운의 매출처는 주로 단체 급식소나 음식점을 거래처로 둔 도매사업자였으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B2C사업을 영위중인 유통기업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 B2C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기업들로의 납품 확대는 고객과의 접점 확대로 이어지며 오리고기도 가정식이라는 인식 확산과 그에 따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12억원, 127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신선육과 가공육, 우모(羽毛, 깃털)수출까지 전 사업부에 걸친 고른 성장이 예상된다. 2014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은 오리고기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켰으나 꾸준하게 계열화 사업을 추진해온 정다운에게는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작용했다. 가격과 점유율의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55.1	4.5	1.8	89	(22.2)	7	23.7	4.3	2.4	10.7	3.2
2015A	58.3	5.1	2.8	138	55.5	7	14.5	3.5	2.0	14.4	0.0
2016A	57.8	3.3	(1.1)	(54)	NM	6	NM	20.7	3.6	(4.2)	0.0
2017A	80.6	11.1	9.9	482	NM	13	7.5	5.5	1.9	29.0	0.0
2018F	91.2	12.7	10.8	527	9.2	15	7.5	5.2	1.6	24.2	0.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Value	Growth	Turn around	Issu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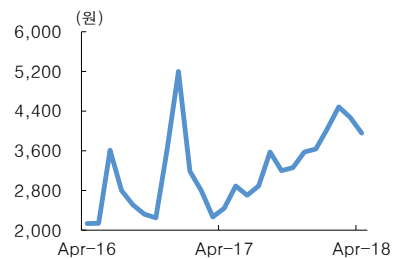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4/4)	2,410
주가(4/4)	3,955
시가총액(십억원)	81
발행주식수(백만)	21
52주 최고/최저(원)	4,900/2,16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2,389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66.4/1.9
주요주주(%)	이지바이오 33.6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5)	23.6	74.6
KOSDAQ 대비(%p)	(4.9)	(10.0)	35.8

주가추이



자료: WISEfn

이내에

nylee@truefrie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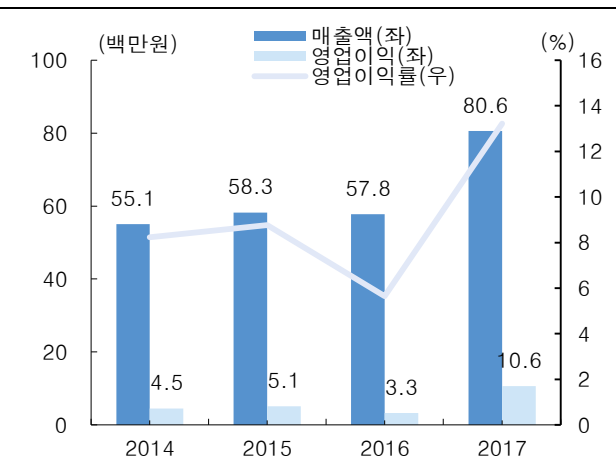
오리 계열화 사업자

정다운은 오리 사육과 도압(오리 도축), 가공 및 유통까지의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오리 계열화 사업자로 오리 사육을 통한 신선육 및 가공육 판매, 우모 수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17년 도압량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은 14.7%이며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신선육 66.7%, 가공육 23.7%, 기타 9.6%다. 이지 바이오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종오리 및 육용오리의 사육을 담당하는 제이 디팜을 종속회사(지분을 89.34%)로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쟁사로는 비상장사인 주원산오리, 참프레 등이 있다.

오리고기, 외식에서 가정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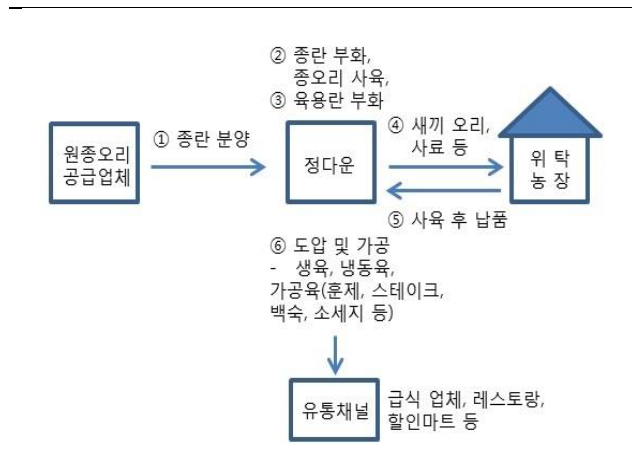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육가공업체의 다양한 2차 가공품 생산으로 오리고기의 가정 내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오리고기 소비 형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와는 달리 가정 내 소비 비중이 약 36.2%에 불과해 외식소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개별포장 의무화제도의 도입, 조리가 간편한 훈제, 슬라이스, 스테이크, 백숙 등 2차 가공품의 생산 확대로 2017년엔 가정 내 오리고기 소비의 비중이 연간 소비의 44.3%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차 가공품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주요 소비층이 보양식으로 섭취하던 중장년층에서 건강식, 다이어트 식을 선호하는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연간 실적 추이



주: 연결 기준
자료: 정다운,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오리 계열화 사업의 구조



자료: 한국투자증권

가공육 부문의 매출 증가는 이익률에도 긍정적

정다운의 가공육 부문 매출액은 2013년 91억원 수준에서 2017년 190억원으로 증가했다. 가공육은 1일 이내 배송이 완료되어야 하는 신선육보다 보유 재고나 저장 기간, 유통거리 및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낮고 개별 포장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상황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가공육 매출 증가는 이익률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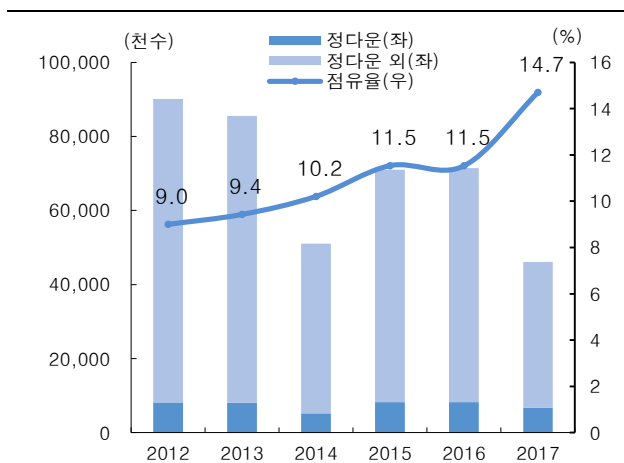
입식제한으로 오리가격 상승세 지속

최근 오리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6~17년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오리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조류독감의 여파로 2017년 오리시장 규모는 도압수 기준 4천6백만수로 2016년의 7천1백만수 대비 64%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도압수를 기록했던 2012년의 9천만수와 비교하면 약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조류독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식제한 권고조치(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오리의 공급량은 제한되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입식제한의 권고대상이 육용오리 뿐만 아니라 육용오리 사육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란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입식이 재개되더라도 오리 공급량 회복은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꾸준히 우상향 중인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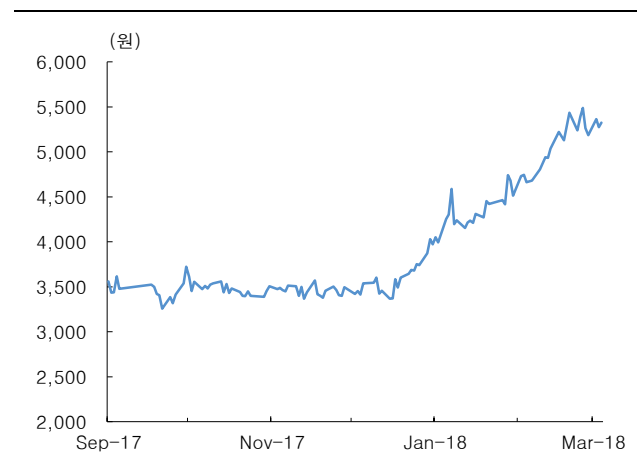
주목할 부분은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전체 시장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다운의 도압수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점유율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9%였던 정다운의 시장 점유율은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던 2014년에 10%에 도달했으며, 2017년엔 14.7%를 기록했다. ‘원종란 - 종오리 - 육용오리’로 이어지는 계열화 사업구조에서 오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커다란 시황 변동 하에서 강점이 되어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오리 사육 농가 중 80% 이상이 계열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 참여 농가의 경우, 가공육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설비 및 네트워크 부족, 품질 및 위생 관리, 생산성 향상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신선육 시장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시장 회복의 수혜는 계열화 사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림 3] 정다운의 시장점유율 추이



주: 도압수 기준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다운,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오리고기 도매가격 추이



자료: 한국오리협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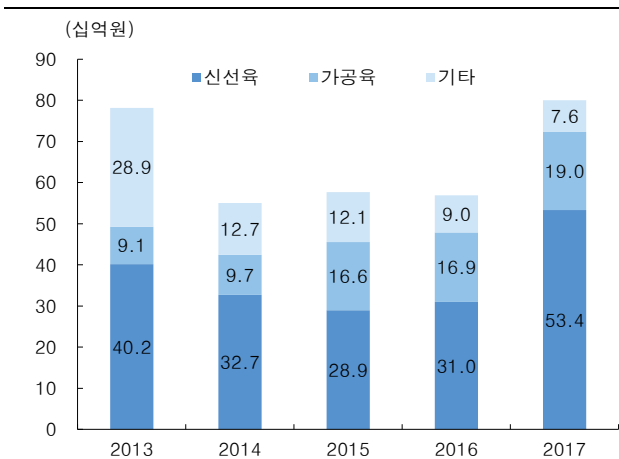
우모 가격의 반등

우모사업은 정다운의 전체 매출에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우모를 1차 가공하여 대만, 베트남 등에 위치한 2차 가공업체로 전량 수출하고 있다. 옷, 침구류 제조기업 등으로부터의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또한 2016년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2018년엔 도입수 증가와 가격 상승에 힘입은 우모 사업부문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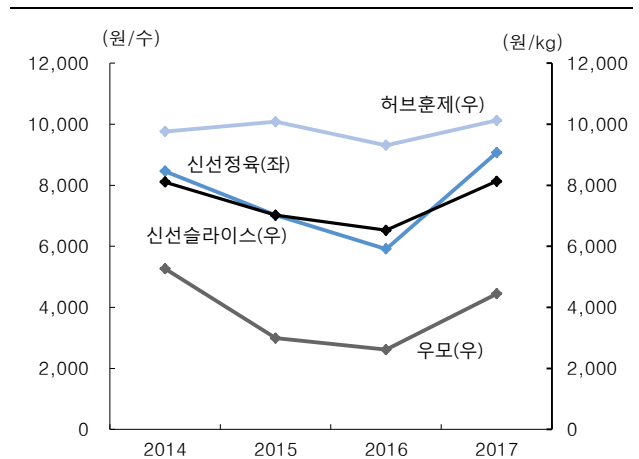
2018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2017년 실적 성장의 배경이었던 1) 수요층 확대와 유통 채널 다변화, 2) 오리가격 상승 및 가공육 매출 증가가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상, 아워홈 등 급식업체 위주였던 납품처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화 및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은 오리고기의 가정식 시장 침투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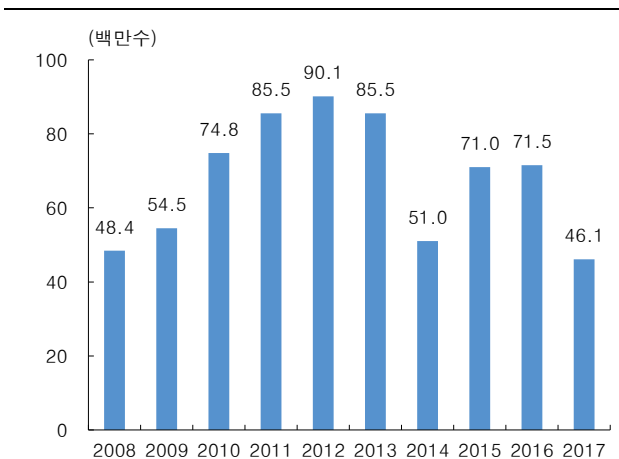
주: 별도 기준
자료: 정다운,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정다운 주요 매출 품목의 판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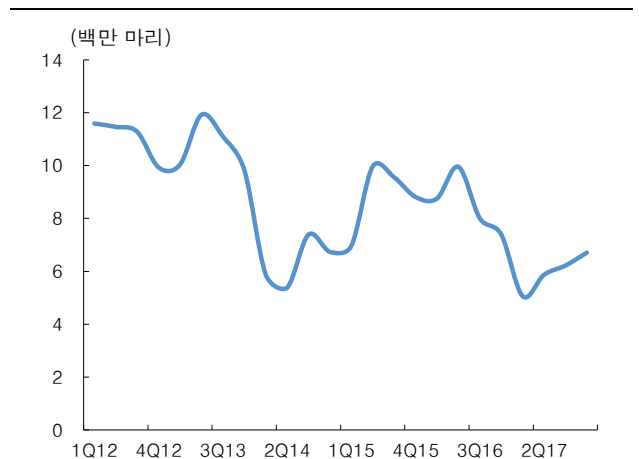
자료: 정다운, 한국투자증권

[그림 7] 국내 오리 시장 규모 추이



주: 도입수 기준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8] 국내 육용오리 사육 두수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및 용어해설

2000년에 설립된 종압, 부화, 사육, 도압, 가공, 유통 등을 일괄적으로 사업화하여 관리하는 오리계열화 사업자로 우모(오리털)와 오리육(신선육, 가공육)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21일,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이지바이오 기업집단에 소속으로 이지바이오는 정다운의 지분을 33.64% 보유하고 있다.

- 종오리: 새끼오리를 부화시키기 위한 오리알(종란)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오리
- 육용오리: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
- 계열화 사업: 농장생산(1차), 공장가공(2차), 시장유통(3차)을 통합한다는 의미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각 단계를 통합하여 계열화하는 것을 의미
- 도압: 오리 도축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4A	2015A	2016A	2017A	2018F
유동자산	18.2	20.6	30.9	37.4	49.3
현금성자산	5.6	6.6	1.9	3.4	5.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8	5.8	7.6	5.3	9.1
재고자산	2.1	3.0	5.7	1.8	3.6
비유동자산	38.6	34.1	29.8	29.9	32.0
투자자산	3.7	3.7	1.7	1.4	1.6
유형자산	28.2	26.5	23.9	26.5	28.0
무형자산	0.0	0.0	0.0	0.0	0.0
자산총계	56.8	54.7	60.7	67.4	81.2
유동부채	19.9	19.7	22.7	20.0	23.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	4.0	4.6	5.4	6.2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9.2	13.9	13.1	11.5	16.5
유동성장기부채	3.2	1.7	4.9	1.7	1.7
비유동부채	19.7	13.5	9.0	7.9	7.4
사채	1.4	0.0	0.0	0.0	0.0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15.8	12.3	7.5	6.9	6.3
부채총계	39.5	33.2	31.8	27.9	30.9
지배주주지분	17.2	21.4	28.8	39.3	50.1
자본금	2.0	1.6	2.0	2.1	2.1
자본잉여금	1.6	3.9	11.5	12.5	12.5
기타자본	0.0	(0.0)	0.5	0.1	0.1
이익잉여금	13.6	15.9	14.8	24.6	35.5
비지배주주지분	0.1	0.1	0.2	0.2	0.2
자본총계	17.3	21.5	29.0	39.5	50.3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4A	2015A	2016A	2017A	2018F
영업활동현금흐름	6.7	(0.1)	(1.8)	19.7	4.8
당기순이익	1.8	2.8	(1.0)	9.9	10.8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0	2.0	2.3	2.0	2.2
무형자산상각비	0.0	0.0	0.0	0.0	0.0
자산부채변동	2.7	(5.7)	(6.9)	7.2	(8.3)
기타	0.2	0.8	3.8	0.6	0.1
투자활동현금흐름	1.6	3.3	(1.9)	(13.0)	(6.7)
유형자산투자	(0.6)	(0.4)	(0.7)	(4.9)	(3.8)
유형자산매각	0.1	0.0	1.1	0.1	0.1
투자자산순증	1.3	0.6	(2.0)	(10.0)	(0.2)
무형자산순증	0.0	0.0	0.0	(0.0)	(0.0)
기타	0.8	3.0	(0.2)	1.8	(2.7)
재무활동현금흐름	(8.2)	(2.2)	(1.1)	(5.2)	4.4
자본의증가	0.1	0.0	0.5	0.6	(0.0)
차입금의순증	(7.9)	(0.6)	(2.4)	(5.3)	4.4
배당금지급	(0.3)	(0.3)	(0.0)	(0.0)	0.0
기타	(0.1)	(1.4)	0.9	(0.5)	0.0
기타현금흐름	0.0	0.0	0.0	0.0	0.0
현금의증가	0.1	1.0	(4.8)	1.5	2.5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4A	2015A	2016A	2017A	2018F
매출액	55.1	58.3	57.8	80.6	91.2
매출원가	44.5	46.4	46.2	61.0	69.4
매출총이익	10.6	11.8	11.5	19.5	21.8
판매관리비	6.0	6.7	8.3	8.4	9.1
영업이익	4.5	5.1	3.3	11.1	12.7
금융수익	0.8	0.7	0.4	0.5	0.8
이자수익	0.2	0.3	0.2	0.5	0.8
금융비용	2.0	1.3	0.9	0.8	0.7
이자비용	1.9	1.2	0.9	0.7	0.7
기타영업외손익	(1.3)	(1.1)	(0.7)	1.3	1.4
관계기업관련손익	0.2	(0.0)	(2.0)	0.9	(0.0)
세전계속사업이익	2.2	3.4	(0.0)	13.0	14.2
법인세비용	0.5	0.6	1.0	3.1	3.4
연결당기순이익	1.8	2.8	(1.0)	9.9	10.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8	2.8	(1.1)	9.9	10.8
기타포괄이익	(0.4)	(0.1)	(0.1)	(0.0)	(0.0)
총포괄이익	1.4	2.6	(1.1)	9.9	10.8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4	2.7	(1.1)	9.9	10.8
EBITDA	6.6	7.1	5.6	13.1	14.9

주요투자지표

	2014A	2015A	2016A	2017A	2018F
주당지표(원)					
EPS	89	138	(54)	482	527
BPS	859	977	1,439	1,914	2,441
DPS	68	0	0	0	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30.2)	5.8	(0.8)	39.4	13.2
영업이익증가율	(30.8)	12.7	(36.2)	239.8	14.7
순이익증가율	(22.2)	56.8	NM	NM	9.4
EPS증가율	(22.2)	55.5	NM	NM	9.2
EBITDA증가율	(22.3)	8.4	(21.8)	134.9	13.5
수익성(%)					
영업이익률	8.2	8.8	5.6	13.7	13.9
순이익률	3.2	4.8	(1.8)	12.3	11.9
EBITDA Margin	12.0	12.2	9.7	16.3	16.3
ROA	2.9	5.0	(1.7)	15.4	14.5
ROE	10.7	14.4	(4.2)	29.0	24.2
배당수익률	3.2	0.0	0.0	0.0	0.0
배당성향	15.2	0.0	NM	0.0	0.0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22	20	15	(3)	(4)
차입금/자본총계비율(%)	175.4	129.9	87.9	51.0	48.8
Valuation(X)					
PER	23.7	14.5	NM	7.5	7.5
PBR	2.4	2.0	3.6	1.9	1.6
EV/EBITDA	4.3	3.5	20.7	5.5	5.2

화장품

사드에 가려진 속제

1Q18 Preview: 부진,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 컨센서스 부합 예상

높은 기저와 인바운드 관광객 시장 위축으로 인해 주요 화장품 6개사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 19% 감소할 전망이다. LG생활건강이 프리미엄 화장품과 면세 시장 호조에 힘입어 양호하고 아모레 P/G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패션 업체에서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화장품 호조가 돋보이고 생산업체 중 코스맥스와 연우가 증익이 가능할 것이다.

화장품, 변곡점에서 확인해야 할 변수는?

2분기부터 화장품 업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회복이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동시에 점검해야 할 변수를 제시해 본다. 산업 내 가장 큰 변화는 유통, 제조업체들의 면세점 및 중국 화장품 시장 참여가 브랜드 경쟁 심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브랜드 성공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확인할 변수는, 면세점 채널과 인바운드 관광객과의 실적 함수, 내수 경쟁력 회복, 중국 및 글로벌 사업 속도다.

프리미엄과 중소형 브랜드 시대: LG생활/신인터/코스맥스 주목

브랜드 업체의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인 '브랜드력'은 프리미엄 화장품에서 유효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위주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는 LG생활건강을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중소형 브랜드 중 유통망과 제조 역량을 확보해 지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 목표주가를 기존 9.2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상향한다. Capex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는 코스맥스의 목표가를 17만원으로 상향한다.

시기별 화장품 업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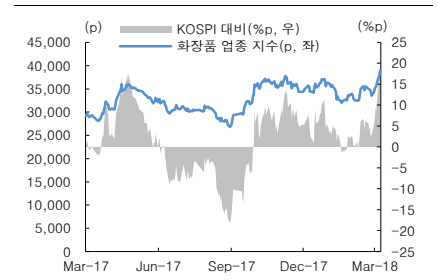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비중확대(유지)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LG생활건강(051900)	매수	1,450,000원
아모레퍼시픽(090430)	중립	-
아모레G(002790)	중립	-
코스맥스(192820)	매수	170,000원(상향)
신세계인터내셔널(031430)	매수	133,000원(상향)
연우(115960)	매수	34,000원

12개월 업종 수익률



자료: WISEfn - WICS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G2 무역전쟁 본격화 우려에 국내 증시 휘청

- 뉴욕증시는 최근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증시 하락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반등하며 3대 지수가 1%대 강세를 보임.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간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로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며 2,410P선 아래로 밀려남.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로 장중 860P선 아래로 밀려났으나 개인 매수세로 낙폭을 다소 줄이며 862P로 마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본격화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임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유한양행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전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에 오스코텍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나노기술을 이용한 인체용 암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엠젠플러스도 장중 신고가를 경신. 남북 경험과 사드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된 에머스퍼시픽은 아난티코브의 매출 등에 힘입어 올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수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에 초강세를 보였으며, 베트남 국방부 및 기업 관계자의 한국 방문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 가로등 보급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이에스브이가 급등세를 보임. 또한, 이달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철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소식에 철도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주주친화정책 기대감에 현대차그룹주가 강세를 보임. 반면, 1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넷마블게임즈가 급락했으며, 내년도 전극봉 가격 하락 전망에 포스코케미칼이 10% 가까이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오스코텍 (039200) ▶31,400 (+18.49%)	폐암치료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한양행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비소세포성 폐암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오는 14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국 암학회에서 비소세포성 폐암치료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6월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1상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에머스퍼시픽 (025980) ▶38,050 (+10.29%)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난티코브의 성공적인 런칭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 등으로 올해 실적 성장 전망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중국이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된 경제 보복 조치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2대 주주인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 주주사 및 계열사와의 시너지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철도 관련주	경원선 복원 남북정상회담 의제 검토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합동공연 등 최근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철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소식에 철도 관련종목들 급등 - 대호에이엘(069460, 상한가), 예코마이스터(064510, +22.45%), 세명전기(017510, +16.55%), 대아티아이(045390, +13.60%), 리노스(039980, +6.10%), 현대로템(064350, +4.73%) 등 강세
현대차그룹주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주친화정책 요구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보통주 10억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요 주주로서 현대그룹지배구조 개편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자세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요구하고 나서며 주주친화정책 기대감에 그룹주 강세 - 현대위아(011210, +4.37%), 현대모비스(012330, +3.52%), 현대글로벌비스(086280, +3.01%), 현대차(005380, +2.96%), 기아차(000270, +2.52%)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엠젠플러스(032790) ▶16,200 (+14.89%)	- 나노메딕스 자회사인 네오나노메딕스코리아와 함께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신고가 행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503,000 (+3.60%)	- 올해 하반기 3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능력 향상 기대감 등으로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서진시스템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권입가 (권입일자)	투자 포인트
서진시스템 (178320)	35,250 (-7.6)	38,150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가공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방 산업과 고객사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 - 상장 첫 해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 소멸 및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 개선 예상 - 기존 사업군인 통신장비, 모바일, 반도체 부품 사업 더불어 ESS 및 자동차 부품의 매출액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
롯데정밀화학 (004000)	69,400 (-7.7)	75,200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법 이익 급증과 전 사업부 실적 호조로 2018년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 전망 - 향후 2~3년 동안은 제한적인 증설로 ECH(Epichlorohydrine)와 가성소다 가격은 강세 기조를 지속할 전망 - 주주친화정책 강화에 따라 배당성향은 30%까지 확대될 전망
쌍용양회 (003410)	22,700 (+14.4)	19,850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열발전 투자 마무리와 수출량 증가로 안정적 성장 전망 - 내륙과 해안공장을 모두 보유해 전국권 커버와 13개국 수출이 가능하고 대한시멘트 인수로 슬래그시멘트 시장 장악 - 2017년 잉여현금흐름의 60%를 배당으로 환원하는 고배당 정책을 시작하여 2018년 기준 7% 이상의 배당수익률 예상
동화기업 (025900)	34,100 (-8.1)	37,100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2분기 본격 가동이 시작된 VRG동화 제2공장이 높은 가동률을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지속적인 외형성장 기대 - 베트남 주택분양 방식이 마감재와 빌트인 가구까지 포함되는 완성형 분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수혜 전망 - 친환경 제품 중심 믹스 개선에 따른 하우징사업부의 이익률 개선 전망
SIMPAC Metal (090730)	13,200 (+13.8)	11,60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하반기부터 설비를 풀 가동함에 따라 금년 1분기에는 분기 최고 실적 달성 예상 - 중국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른 합금철의 공급 감소로 합금철 가격이 구조적인 강세를 이어갈 전망 - 여의도의 SIMPAC 빌딩 지분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의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자산가치 부각
TPC (048770)	5,980 (-11.7)	6,770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업 고정비 및 시장 진입비용 반영 완료에 따른 턴어라운드 전망 - 정밀제어를 요구하는 자동차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모션콘트롤 사업부분의 실적 개선 전망 -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및 정부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구조적 성장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오일뱅크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현대오일뱅크 (267250)	409,000 (-5.9)	434,500 (2/27)	25,018	2,175	1,170	79,950	5.3
			- 설비고도화에 따른 자회사 현대오일뱅크의 정유 매출 큰 폭 증가 - 올해 안에 유류 정유 생산능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아시아 spot 정제마진 역사적 고점 돌파 전망 - 3월 현대오일뱅크의 고배당 지급이 예상되며, 현대오일뱅크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전망				
이마트 (139480)	289,500 (+1.6)	285,000 (2/7)	18,167	613	474	17,013	16.6
			- Affinity Equity Partners 및 BRV Capital Management와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로 온라인 사업 부문 역량 강화 전망 -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해 기존의 협상력과 물류망의 경쟁우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신규 상품의 개발역력 확대 예상 - 외형성장과 함께 손익 개선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구간으로 리레이팅 본격화 가능성 상존				
한솔시큐어 (070300)	6,300 (+6.8)	5,900 (12/28)	19	3	2	272	26.1
			-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은 eSIM(embedded SI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G+D(독일 스마트카드업체인 G&D의 자회사)의 지분 투자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보안 인식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15,600 (+19.1)	13,100 (12/28)	92	11	9	1,446	12.4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SK텔레콤 (017670)	234,500 (-12.2)	267,000 (12/28)	17,753	1,757	3,033	42,955	5.5
			- IPTV 수익호전, 사물인터넷 가입자 증가, 5G 서비스로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 - 콘텐츠 이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요금상향으로 이어져 손익에 긍정적 -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SK하이닉스 등 자회사의 지분가치 상승, 배당 매력				
이엠텍 (091120)	17,800 (+1.1)	17,600 (12/28)	191	14	10	659	26.4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SK텔레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4/4(화) 증가	등락률(%)			
		1D	5D	1M	YTD
KOSPI	2,408.06	-1.41	-0.46	0.25	-2.41
KOSPI200	308.54	-1.54	-1.05	0.06	-4.99
대형주	2,323.56	-1.46	-0.71	0.45	-3.95
중형주	2,737.81	-1.14	0.48	-0.33	0.10
소형주	2,221.84	-1.21	0.93	2.72	9.26
KOSDAQ	862.51	-1.12	1.36	0.27	8.03
KOSDAQ150	1,538.80	-0.99	1.83	-0.60	8.84

수급	4/4(화)	1D	5D	1M	YTD
거래량 (백만 주, 기간 평균)	KOSPI	543	477	477	391
	KOSDAQ	813	793	793	966
거래대금 (십억 원, 기간 평균)	KOSPI	7,886	7,580	7,580	7,006
	KOSDAQ	5,979	5,504	5,504	6,779

(단위: %, bp)

금리	4/4(화)	1D	5D	1M	YTD
국고채 3년물	2.20	-2.20	-3.00	-11.00	6.10
국고채 5년물	2.43	-0.80	-3.00	-12.70	8.00
국고채 10년물	2.64	0.00	-3.30	-11.80	17.00
회사채 3년(AAA-)	2.66	-2.20	-2.80	-5.60	11.50
회사채 3년(BBB-)	8.82	-2.20	-4.50	-12.50	3.00

(단위: 원, %)

외환	4/4(화)	1D	5D	1M	YTD
원/달러	1059.70	-0.47	1.04	2.10	0.73
원/100엔	999.09	-0.96	0.30	1.77	-5.23
원/유로	1300.84	-0.01	1.94	2.40	-1.90
원/위안	168.37	-0.40	0.98	1.19	-2.57

업종 지수	4/4(화)	등락률(%)			
		1D	5D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684.49	1.87	1.98	1.96	-3.19
반도체	2,576.47	-2.19	-2.22	-4.62	-7.45
헬스케어	4,637.98	0.81	4.28	-2.64	20.62
은행	843.57	-0.29	-4.3	-10.71	-9.96
에너지화학	2,702.26	-1.4	-0.61	-3.46	-2.24
철강	1853.82	-0.94	-3.12	-6.68	-9.7
방송통신	959.88	-0.52	2.08	1.6	-6.49
건설	575.13	-1.94	-1.86	1.98	2.54
증권	735.58	-1.07	-1.77	-4.57	3.23
기계장비	562.66	-2.23	-7.72	-3.22	5.13
보험	1742.38	-1.4	-2.3	-7.9	-10.01
운송	625.03	-1.17	4.21	6.49	7.59
유틸리티	1,229.09	-1.01	-0.40	-3.39	4.37

업종 지수	4/4(화)	1D	5D	1M	YTD
KOSDAQ150					
기술주	1,884.55	-0.70	2.05	-1.15	9.87
소재	1,351.12	-4.84	-4.85	-7.68	-13.96
산업재	289.93	-2.19	-4.33	-12.43	-7.33
필수소비재	1,079.72	-2.19	-0.61	-8.39	5.68
자유소비재	1,424.71	0.39	9.33	25.12	21.86
정보기술	716.48	-2.58	-1.22	-5.05	-5.57
생명기술	5,475.09	0.67	4.34	0.28	16.22
문화기술	2,488.41	-3.78	-1.90	5.54	11.29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타	
유가증권	매수	5,010	1,549	1,722	260.38	116.15	251.12	166.44	20.58	267.18	292.72	67.49
	매도	4,482	1,748	1,375	538.9	118.33	225.82	166.35	21.04	264.77	387.03	48.1
	순매수	527.47	-199.18	-347.68	-278.52	-2.18	25.3	0.09	-0.46	2.42	-94.31	19.38
	2018년 1월 누계	730.21	-332.53	-385.8	-233.7	-16.62	57.28	27.15	-4.59	-69.41	-145.88	-11.89
	2018년 누계	2116.23	-679.21	-1,791	-3,131	656.43	912.95	-146.47	-18.27	-230.32	165.48	353.82
코스닥	매수	5,213	503.18	368.58	58.76	16	50.73	71.61	2.95	26.58	22.27	37.59
	매도	4,979	592.59	248.89	117.11	25.3	54.53	97.21	6.1	40.52	27.8	62.45
	순매수	233.96	-89.41	-119.69	-58.36	-9.3	-3.8	-25.6	-3.16	-13.93	-5.53	-24.86
	2018년 1월 누계	317.42	-44.01	-154.27	-84.41	-19.08	-1.69	-22.48	-0.97	-11.91	-13.73	-119.14
	2018년 누계	2,118	-912.64	-96.32	389.28	-16.12	422.82	-589.64	-65.44	-248.32	11.07	-1108.53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자동차	667	반도체	-1,499	자동차	765	반도체	-1,352
	유틸리티	303	소프트웨어	-922	건강관리	203	소프트웨어	-241
	건강관리	299	IT가전	-467	소매(유통)	71	IT가전	-189
	호텔,레저서비스	125	상사,자본재	-444	보험	44	운송	-182
	통신서비스	92	기계	-301	상사,자본재	30	IT하드웨어	-173
종목	현대차	476	삼성전자	-1,183	삼성바이오로직스	518	삼성전자	-1,304
	한국전력	314	KODEX 레버리지	-793	현대차	278	셀트리온	-532
	삼성바이오로직스	149	NAVER	-330	현대모비스	227	하나금융지주	-191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145	LG전자	-289	엔씨소프트	153	NAVER	-189
	현대모비스	134	카카오	-261	기아차	121	한국전력	-149
	KODEX 200 선물인버스2X	101	SK하이닉스	-225	신한지주	89	카카오	-107
	한미약품	94	넷마블게임즈	-190	이마트	86	호텔신라	-96
	호텔신라	88	삼성SDI	-165	LG생활건강	69	현대상선	-91
	아모레퍼시픽	79	팬오션	-152	현대위아	63	현대중공업	-88
	유한양행	71	SK	-134	LG	62	LG이노텍	-87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건강관리	13	미디어,교육	-370	건강관리	144	IT하드웨어	-157
	필수소비재	12	비철,목재등	-232	조선	14	비철,목재등	-99
	은행	5	반도체	-138	통신서비스	1	기계	-93
	소매(유통)	3	IT하드웨어	-113	에너지	1	반도체	-91
	유틸리티	2	조선	-66	증권	0	디스플레이	-89
	종목	제넥신	69	포스코켐텍	-236	카페24	101	셀트리온헬스케어
필어비스		62	에스엠	-195	신라젠	60	포스코켐텍	-88
메디포스트		61	차바이오텍	-97	셀트리온제약	49	이오테크닉스	-40
메디톡스		38	제이콘덴트리	-76	메디톡스	36	텍셀네트컴	-38
엔지켐생명과학		32	에이치엘비	-52	바이로메드	33	우리기술투자	-33
삼천당제약		25	이오테크닉스	-45	비에이치	30	바이오빌	-32
팜트론		19	오스코텍	-44	제넥신	30	솔브레인	-31
매일유업		17	스튜디오드래곤	-43	테스	25	파라다이스	-30
휴젤		16	모두투어	-33	차바이오텍	24	안랩	-29
성우하이텍		11	JYP Ent.	-31	휴온스글로벌	24	텔콘	-27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301,195	2,346,000	-2.49	-7.93
SK하이닉스	58,531	80,400	-1.71	5.10
셀트리온	36,064	294,000	-1.67	32.97
현대차	34,473	156,500	2.96	0.32
삼성바이오로직스	33,281	503,000	3.60	35.58
POSCO	27,682	317,500	-2.31	-4.51
LG화학	26,543	376,000	-0.66	-7.16
삼성물산	25,798	136,000	-2.51	7.94
현대모비스	25,747	264,500	3.52	0.57
NAVER	24,854	754,000	-3.95	-13.33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3,890	101,000	-2.42	-7.0
신라젠	7,304	107,100	1.90	14.6
메디톡스	4,242	750,000	4.31	54.7
바이로메드	3,855	241,600	1.81	48.0
CJ E&M	3,641	94,000	-0.95	-3.8
필어비스	2,944	244,000	0.62	-1.5
에이치엘비	2,912	79,900	4.86	106.7
코오롱티슈진	2,853	46,850	-1.47	-9.6
셀트리온제약	2,739	82,100	-0.48	34.2
휴젤	2,697	618,800	1.94	10.6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종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501.89	0.45	0.12	-1.85	-2.17
	MSCI 선진국	2,048.80	0.50	0.05	-1.96	-2.60
	MSCI 신흥국	1,170.15	0.06	0.64	-1.01	1.01
DM	S&P500	2,614.45	1.26	-1.66	-2.85	-2.21
	Dow Jones	24,033.36	1.65	-0.70	-2.06	-2.77
	Nasdaq	6,941.28	1.04	-3.87	-4.36	0.55
	Russell 2000	1,512.16	1.31	-2.04	-1.37	-1.52
	영국 FTSE 100	7,004.88	-0.36	1.69	-0.92	-8.88
	프랑스 CAC	5,122.62	-0.57	1.11	-0.27	-3.58
	독일 DAX 30	11,871.06	-1.09	0.71	-0.36	-8.10
	스페인 IBEX	9,469.20	-0.84	0.94	-0.65	-5.72
	일본 니케이	21,319.55	0.13	1.37	0.65	-6.35
	홍콩 항셱	29,518.69	-2.19	-3.37	-3.48	-1.34
	EM	코스피	2,408.06	-1.41	-0.46	0.25
코스닥		862.51	-1.12	1.36	0.27	8.03
중국 상해종합		3,131.11	-0.18	0.28	-3.79	-5.32
홍콩 H지수		11,857.41	-2.30	-2.79	-2.84	1.26
인도 Sensex		33,070.80	-0.90	0.01	-2.87	-2.90
베트남 VN		1,191.54	0.27	1.65	6.27	21.06
인도네시아 JCI		6,155.01	-1.19	-0.88	-6.49	-3.16
러시아 RTS		1,231.29	-0.47	0.37	-2.40	6.66
브라질 Bovespa		84,623.46	-0.05	-0.55	-1.33	10.76
멕시코 Mexbol		46,684.06	1.87	0.36	-1.82	-5.41
글로벌 업종	에너지	168.80	-0.15	0.94	0.23	-3.25
	소재	209.02	-0.67	-0.03	-3.09	-3.14
	산업재	284.29	-0.47	-0.05	-1.43	-2.72
	경기소비재	258.11	-0.05	0.82	-0.75	-2.69
	필수소비재	293.04	0.07	0.17	-0.79	-2.18
	헬스케어	531.12	-0.18	0.96	-1.62	0.56
	금융	178.49	-0.50	-0.34	-2.78	-1.94
	IT	372.40	-0.45	-0.12	-2.81	2.48
	통신서비스	169.17	-0.31	-0.21	-2.28	-4.52
	유틸리티	168.26	-0.02	-0.24	3.25	-1.41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종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0.00	-0.22	0.70	0.07	-2.30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17.57	-0.18	-0.30	-0.78	-1.26
미주	브라질	3.34	-0.83	-0.44	-2.93	-0.85
	멕시코	18.29	-0.40	0.07	2.76	7.47
아시아	한국	1,059.70	-0.47	1.04	2.10	0.73
	일본	106.21	0.38	0.60	-0.01	6.10
	중국	6.30	-0.18	-0.05	0.77	3.27
	대만	1.30	0.13	-0.17	1.17	1.71
	인도	65.08	-0.10	0.15	0.05	-1.86
유럽	유로존	1.23	0.19	-0.12	-0.35	2.40
	영국	1.41	0.17	0.03	1.68	4.20
	러시아	57.86	-0.46	-0.16	-2.52	-0.30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10Y)		(단위: bp)				
지역	국가	종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77	-0.91	-1.45	-9.81	36.08
	캐나다	2.15	3.30	0.30	-5.30	10.30
	브라질(USD)	9.75	25.00	25.00	18.20	-51.10
	멕시코	7.34	-0.60	0.30	-27.80	-32.20
	유럽	독일	0.50	-0.30	-0.50	-15.30
	영국	1.35	-1.30	-2.00	-12.80	15.60
	프랑스	0.73	-0.40	-0.50	-19.40	-5.90
	이탈리아	1.79	-0.80	-5.50	-18.40	-23.00
	러시아	4.50	-4.40	-5.60	10.50	62.90
아시아	한국	2.64	0.00	-3.30	-11.80	17.00
	일본	0.03	0.30	-0.60	-3.50	-1.50
	중국	3.75	0.70	1.80	-10.80	-15.00
	호주	2.63	2.60	4.30	-10.20	0.20
	인도	7.34	0.40	-6.30	-40.50	1.0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종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46.90	0.41	-1.36	1.21	1.01
	LMEX 지수	3,219.50	0.46	1.12	-2.92	-5.83
	CRB 지수	437.25	0.22	0.25	-1.54	1.14
에너지	원유(WTI)	62.82	-1.09	-3.72	2.56	3.97
	원유(Brent)	67.40	-1.06	-3.87	4.71	0.79
	천연가스	2.68	-0.70	-0.48	-0.63	-9.31
금속	금	1,343.90	0.83	0.14	1.55	2.64
	은	16.47	0.48	-0.12	0.48	-3.94
	구리	6,796.00	1.22	2.04	-1.48	-6.22
	아연	3,280.00	0.18	1.96	-2.24	-1.18
	알루미늄	1,978.00	-1.32	-3.54	-7.96	-12.79
농산물	S&P 농산물 지수	296.53	0.78	1.91	-3.36	5.10
	옥수수	374.50	-3.60	0.13	-2.79	4.32
	밀	449.25	-1.80	0.06	-10.15	2.04
	대두	988.25	-4.79	-3.07	-7.73	1.57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종가	1D	5D	1M	YTD
미국	VIX	22.88	8.44	1.69	16.79	107.25
유럽	VSTOXX	19.95	6.01	-9.56	-14.71	47.62
한국	VKOSPI	18.86	1.34	-4.80	8.45	56.38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6	27	28	29	30
	美>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127.7, 131.0, 130.8) 유럽> 2월 M3 통화공급 YoY (4.2%, 4.6%, 4.6%) 3월 소비자기대지수 (0.1, 0.1, 0.1)	韓> 4Q GDP YoY (2.8%, 3.0%, 3.0%)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4.8%, n/a, -1.1%) 2월 도매재고 MoM (1.1%, 0.5%, 1.0%) 4Q GDP 연간화 QoQ (2.9%, 2.7%, 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15, 230, 229) 2월 개인소비지수 (0.2%, 0.2%, 0.2%)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101.4, 102.0, 102.0)	日> 2월 유효구인배율 (1.58, 1.60, 1.59) 2월 실업률 (2.5%, 2.6%, 2.4%) 2월 광공업생산 MoM (4.1%, 5.0%, -6.8%)
2	3	4	5	6
韓> 3월 수출 YoY(1일) (6.1%, 6.9%, 4.0%) 美> 3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55.6, 55.7, 55.7) 日> 1Q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24, 25, 26) 1Q 단칸 전체산업 Capex (2.3%, 1.1%, 6.4%) 中> 3월 차이신 PMI 제조업 (51.0, 51.7, 51.6)	韓> 3월 CPI YoY (1.3%, 1.4%, 1.4%) 유럽> 2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6.6, 56.6, 56.6)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4.8%) 2월 제조업수주 (n/a, 1.7%, -1.4%) 2월 내구재주문 (n/a, n/a, 3.1%)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25, 215) 2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56.8, -56.6)	美> 3월 비농업부분고용(천건) (n/a, 185, 313) 3월 실업률 (n/a, 4.0%, 4.1%)
9	10	11	12	13
日> 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n/a, 607.4)	美> 3월 PPI 최종수요 (n/a, 0.2%, 0.2%) 2월 도매재고 MoM (n/a, n/a, 1.1%)	韓> 3월 실업률 SA (n/a, n/a, 3.6%) 美> FOMC 회의록 공개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3월 CPI MoM (n/a, -0.1%, 0.2%) 日> 2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n/a, 8.2%) 3월 PPI YoY (n/a, n/a, 2.5%) 中> 3월 PPI YoY (n/a, n/a, 3.7%) 3월 CPI YoY (n/a, n/a, 2.9%)	韓> 읍선반기일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50%)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美> 기업실적: JP Morgan, Wells Fargo, Citibank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n/a, 101.4)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일)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